

무엇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통일 후 이익과 사회문제 개선 기대를 중심으로*

문 예 찬**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통일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이러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통일이 개인과 국가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통일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통일 논의에서 단순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불평등 해소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통일 개인 이익과 국가 이익이 클수록 통일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특정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방식은 차이를 보였다. 빈부격차 해소 기대는 통일이 개인과 국가에 미치는 이익이 클수록 통일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다른 사회문제 개선 기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통일필요성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통일 정책과 대중적 설득 전략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증진과 불평등 해소를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통일의식, 통일필요성, 통일이익, 사회문제 개선, 통일 정책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았다.

** 주저자: 문예찬/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yechan_moon@yonsei.ac.kr

I. 서론

통일의식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한국에서 통일은 헌법적 과제이자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목표로 통용된다. 이에 따라 통일의식을 높이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전형권, 2015; 오기성, 2022). 그렇다면, 무엇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의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정동준, 2017; 김규철, 2022), 이는 앞으로의 통일 논의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으로는, 세대별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MZ세대의 통일의식 약화에 주목하여 통일필요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변종현, 2022; 이봉석, 2024).

본 연구는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통일 후 이익과 사회문제 개선 기대를 중심으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통일을 이익으로 생각할수록, 통일 이후 긍정적 사회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수록 통일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통일의식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통일필요성 인식은 개인 및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해관계, 북한에 대한 태도,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문제 개선 기대 등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이 통일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할수록 통일필요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통일이 경제적·정치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클수록 통일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필요

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로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 통일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통일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토한 결과, 특정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통일필요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부격차 해소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기대는 통일필요성 인식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실업률 감소, 범죄율 감소, 지역갈등 완화, 이념갈등 해소 등의 기대는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거나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통일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이념적 논리보다는 개인 및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불평등 완화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이 빈부격차 해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때, 국민들이 통일을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통일편익과 같은 추상적 개념보다는 각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점을 제시하여 통일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통일필요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가 통일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가진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이후 연구 방법을 설명한 후,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통일의식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축적되어 왔으며, 기존 연구들은 통일필요성 인식이 연령, 경제적 조건, 정치적 성향, 북한에 대한 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통일을 당위적·규범적 과제로 인식하기보다는, 통일을 통해 기대되는 개인적·국가적 이익, 통일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 국가 효능감과 같은 현실적 판단 요소가 통일필요성 인식의 핵심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정동준, 2017).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된 요인 중 하나는 연령이다. 다수의 연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며, 이는 젊은 세대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약화되고, 통일로 인한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인식되는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변중헌, 2012). 실제로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로 인한 기대 이익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반면,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강동선 & 우경봉, 2024). 다만 이러한 연령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특히 젊은 연령대 여성의 경우 동 연령대 남성과 비교했을 때 통일필요성 인식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현대적 성차’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구분상 & 최준영, 2019). 이는 통일의식의 세대적 분화가 단순한 연령 변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성별 및 사회적 역할 인식과 결합된 보다 복합적인 판단 구조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일필요성 인식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강하게 구조화된다. 기존 연구들은 통일을 통해 기대되는 개인적·국가적 이익에 따라 통일 인식이 달라지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과 자

산의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분석하였다(강동선, 우경봉, 2024). 특히 20~30대의 통일 인식은 통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정치적 관심, 정치 성향,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족 역시 통일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민재, 2017). 나아가 통일 편익과 비용 인식이 통일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 인식이 통일필요성 판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백대현 & 이대완, 2015; 김도경, 2019). 특히 통일 편익 가운데에서도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 인식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이 국가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클수록 통일필요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김도경, 2019).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통일의식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경제적 부담이나 위협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통일필요성 인식이 체계적으로 달라진다고 분석하였다. 북한에 대한 정체성과 정서적 유대감이 강할수록 통일을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수록 통일필요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내영, 2014). 또한 대북제재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통일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에서는 대북제재 인식이 통일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통일의식이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문예찬 외, 2024).

이와 함께 정치적 성향과 국가 효능감 역시 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보수적 정치 성향이나 능력주의적 신념이 강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 집단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이수빈 외, 2023). 반면, 대한민국

이 통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통일필요성과 통일 지지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이수빈 외, 2023). 통일 교육 또한 통일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경색이나 국제정치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은 통일인식 변화에 구조적 제약을 가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정용하, 2013). 이는 통일 교육이 통일필요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통일인식이 개인 차원의 학습 효과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통일필요성 인식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인식과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통일필요성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는 통일 편익의 한 요소로 간주되거나 부차적 변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이익 인식과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이론과 분배 정의이론을 이론적 틀로 적용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정책 선택 과정에서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평가하며,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을 선호한다(Downs, 1957; Lupia & McCubbins, 1998). 이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 역시 민족적 특수성에 기반한 예외적 선택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 선택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분배 정의이론은 정책 지지의 동기를 단순한 물질적 이익을 넘어 공정성, 형평성,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한다(Rawls, 1971; Tyler, 1990). 통일이 빈부격차 완화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통일필요성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대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개인적 이익 인식과의 관계에 따라 조

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이가 비교정치 연구 역시 정치적 통합이나 체제 통합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의 통합을 통해 임금 상승, 소비 수준 개선, 사회보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요 지지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도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통일에 대한 태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Alesina & Fuchs-Schündeln, 2007). 또한 유럽연합(EU) 통합에 관한 연구들은 단일시장 접근, 고용 기회 확대, 재정 이전 등 경제적 편익에 대한 기대가 통합 지지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보여주며, 개인의 소득 수준과 노동시장 지위, 국가의 순수혜자 여부에 따라 통합에 대한 태도가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Gabel, 1998a; Gabel, 1998b; Hooghe & Marks, 2005).

이러한 논의들은 통일이나 정치적 통합에 대한 태도가 상징적·이념적 요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효과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통일인식 연구를 확장하여, 통일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이익 인식과 사회문제 개선 기대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들이 통일필요성 인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가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통일필요성 인식은 통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의해 구조화된다. 특히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이 정책 선택 과정에서 기대되는 편익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배 정의이론은 이러한 판단이 사회적 형평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결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통일필요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인식과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인식은 통일필요성 인식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설정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통일이 개인의 삶이나 국가 전반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통일을 하나의 유익한 정책 선택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통일이 상징적·이념적 사안이기 이전에, 기대 효용에 관한 판단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통일이 개인 및 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통일필요성 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는 통일필요성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본 연구는 그 효과가 경제적 이익 인식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한다. 분배 정의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정책이 빈부격차 완화, 부동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인식할 때 해당 정책을 보다 정당하고 수용 가능한 선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통일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가 약할 경우, 통일필요성 인식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통일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이익 인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즉, 통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통일이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통일필요성 인식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2: 통일로 인한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는 통일의 경제적 이익 인식이 통일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할 것이다.

IV.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일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북한에 대한 태도,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 변화 인식 등이 통일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2023년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74세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연구 방법으로 다중 회귀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강건한(robust) 표준 오차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통일필요성 인식은 0과 1로 구성된 이항변수이나, 분석의 주된 목적이 예측 확률 자체보다는 독립변수의 방향성과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석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형 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 즉 OLS 회귀분석을 주요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항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널리 활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계량사회과학 및 정치학 연구에서는 OLS가 실증 분석의 주된 도구로서 충분히 타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석과 비교 측면에서 더 적합할 수 있음이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Angrist and Pischke, 2009; Angrist and Pischke, 2014).

첫째, 선형확률모형에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가 1일 확률에 미치는 평균적 변화로 직접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로지스틱 회귀의 로그 오즈 계수와 달리 추가적인 변환이나 한계효과 계산 없이도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통일에 대한 태도와 인식과 같이 정책적·사회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

석상의 명확성이 중요한 분석적 이점으로 작용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적 이익 인식, 국가적 이익 인식,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를 포함한 다수의 설명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모형을 확장하고, 변수 간 효과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 양상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집합이 달라질 때 계수의 스케일이 변동될 수 있어, 동일한 표본 내에서도 계수 간 직접 비교가 곧바로 효과의 크기 차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Allison, 1999; Mood, 2010).

셋째,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개인·국가 이익 인식과 사회문제 개선 기대 간의 조절효과를 분석의 핵심으로 설정한다. 비선형 모형인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실제 상호작용 효과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으며,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다른 공변량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방법론적으로 지적되어 왔다(Ai and Norton,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통일필요성 인식은 응답자가 남북한 통일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측정된 변수이다. 원 설문 문항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로 응답한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명확한 긍정 판단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으며, 그 외 응답은 0으로 처리하여 이항변수로 변환하였다.

이와 같은 이항화는 통일필요성 인식을 연속적인 태도 강도의 차이로 분석하기보다는, 통일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자체에 분석의 초점을 두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이다. 통일은 단기적 정책 선호와 달리 장기적 비용 부담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정치·사회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그저 그렇다’ 응답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유보적 태도 또는 판단 회피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긍정 또는 부정 집단에 포함시킬 경우 해석상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 필요성 인식 여부를 보다 보수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이항변수화 방식을 채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개인의 이해관계 인식이 통일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일 개인 이익과 통일 국가 이익 변수를 설정하였다. 통일 개인 이익 변수는 “통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로 응답한 경우를 1로,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로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통일 국가 이익 변수 역시 “통일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통일로 인한 이익 기대의 미세한 강도 차이보다는, 통일이 개인 또는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의 존재 여부가 통일필요성 판단의 핵심적 인지 기반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통일 이후 예상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가 통일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 변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문 문항에서는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 문제, 범죄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의 여섯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통일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크게 개선’ 또는 ‘약간 개선’으로 응답한 경우를 해당 사회문제가 통일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는 명확한 기대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1로,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로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이는 통일이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의 존재 여부가 통일필요성 인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가적으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북한 인식 변수는 응답자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한 변수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의 다섯 가지 응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값이 클수록 북한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도록 지원 대상은 1, 적대 대상은 5로 코딩하였다.

남북 대화 가능 변수는 북한 정권을 통일 논의의 상대로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지를 측정한 변수로,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가능하다’ 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로 응답한 경우를 1로, 그 외 응답을 0으로 처리하였다. 성별 변수는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으며, 연령 변수는 1(19~29세),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로 범주화하였다. 학력 변수는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경제적 수준 변수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1(200만 원 미만), 2(200~299만 원), 3(300~399만 원), 4(4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적 성향 변수는 응답자의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1(진보적), 2(중도), 3(보수적)으로 코딩하였다.

<표 1> 기술통계표

변수명	관측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통일필요성	1,200	0.4383	0.4964	0	1
통일 개인 이익	1,200	0.2792	0.4488	0	1
통일 국가 이익	1,200	0.5358	0.4989	0	1

변수명	관측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빈부격차 해소	1,200	0.1067	0.3088	0	1
부동산투기 해소	1,200	0.1400	0.3471	0	1
실업률 해소	1,200	0.2758	0.4471	0	1
범죄율 해소	1,200	0.0475	0.2128	0	1
지역갈등 해소	1,200	0.1008	0.3012	0	1
이념갈등 해소	1,200	0.1125	0.3161	0	1
북한 인식	1,200	2.9833	1.3643	1	5
남북 대화 가능	1,200	0.3150	0.4647	0	1
성별	1,200	0.4917	0.5001	0	1
연령	1,200	3.1983	1.4197	1	5
학력	1,200	2.4425	0.6194	1	3
경제적 수준	1,200	3.4683	0.8610	1	4
정치적 성향	1,200	1.9933	0.6943	1	3

V. 연구결과

본 연구는 통일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통일이 개인과 국가에 미치는 이익에 대한 인식을 설정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 대화 가능성,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정치적 성향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의 분석 결과,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통일을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개인 이익 변수의 계수는 0.90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가 통일이 자신의 삶에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할 경우, 통일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기대되는 통일의 이익은 통일필요성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통일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통일 국가 이익 변수의 계수는 1.204로, 통일 개인 이익 변수보다 더 큰 값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통일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할수록 통일을 필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일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대 이익에 의해 더욱 강하게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북한 인식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북한 인식 변수의 계수는 -0.21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을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을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 대화 가능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가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식할수록 통일을 필요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한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필요성 인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별 변수의 경우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통일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개인 이익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국가 이익 모형에서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였다. 이는 여성 응답자가 통일을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학력, 경제적 수준, 정치적 성향 변수는 통일필요성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통일필요성 인식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이념적 성향보다는, 통일로 인해 기대되는 개인적·국가적 이익과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 통일 개인 이익 및 국가 이익이 통일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1)	(2)
	개인 이익	국가 이익
통일 개인 이익	0.902*** (0.148)	
통일 국가 이익		1.204*** (0.132)
북한 인식	-0.213*** (0.0487)	-0.213*** (0.0502)
남북 대화 가능	0.544*** (0.145)	0.598*** (0.144)
성별	-0.282** (0.128)	-0.241* (0.130)
연령	0.284*** (0.0558)	0.290*** (0.0570)
학력	-0.0881 (0.131)	-0.0900 (0.132)
경제적 수준	-0.0650 (0.0787)	-0.0837 (0.0812)
정치적 성향	-0.0714 (0.0951)	-0.0808 (0.0987)
Constant	-0.253 (0.523)	-0.637 (0.527)
Observations	1,200	1,200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1$, ** $p < 0.05$, * $p < 0.1$

부록 1의 분석 결과,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통일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통일 개인 이익 변수는 여섯 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개인이 통일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클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안정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필요성 인식이 개인 수준의 비용-편익 평가에 의해 강하게 구조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 변수의 직접 효과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해소 기대, 빈부격차 해소 기대, 실업률 해소 기대, 이념갈등 해소 기대는 통일 필요성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통일이 특정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통일 필요성 인식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범죄율 해소 기대와 지역갈등 해소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모든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통일 개인 이익과 통일 필요성 인식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토한 결과, 일부 상호작용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빈부격차 해소 기대, 실업률 해소 기대, 부동산 투기 해소 기대와 통일 개인 이익 간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범죄율 해소 기대, 지역갈등 해소 기대, 이념갈등 해소 기대와 통일 개인 이익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해당 기대가 통일 개인 이익과 통일 필요성 인식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부록 2의 통일 국가 이익 모형에서도 기본적인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익

이 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통일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일 필요성 인식이 개인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비용-편익 평가에 의해서도 강하게 형성됨을 보여준다.

사회문제 개선 기대 변수 중에서는 빈부격차 해소 기대와 통일 국가 이익 간의 상호작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투기 해소, 실업률 해소, 범죄율 해소, 지역갈등 해소, 이념갈등 해소 기대는 통일 국가 이익과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모든 모형에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통일 필요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성별 변수의 경우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통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반면, 학력, 경제적 수준, 정치적 성향 변수는 통일 필요성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I. 결론

본 연구는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이러한 인식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통일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독립변수로 통일 개인 이익과 통일 국가 이익을 설정하고,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일이 개인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통일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정치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도 통일필요성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정치적·이념적 요인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는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통일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 통일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로(안득기, 2007; 김병로, 2017; 김나영 2021; 서정욱 외, 2021), 북한에 대한 인식이 통일필요성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통일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빈부격차 해소 기대와 부동산 투기 해소 기대가 통일필요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클수록 통일필요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실업률 해소, 범죄율 감소, 지역갈등 완화, 이념갈등 해소 기대는 통일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기대가 통일필요성 인식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통일 개인 이익 및 국가 이익과 사회문제 개선 기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빈부격차 해소 기대는 통일 개인 이익 및 통일 국가 이익과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였다. 즉, 개인이 통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도, 통일이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클 경우 통일필요성 인식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통일 논의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불평등 해소

와 같은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동산 투기 해소, 실업률 해소, 범죄율 해소, 지역갈등 해소, 이념갈등 해소 기대는 통일 개인 이익 및 국가 이익과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통일필요성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과 조절 변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성과와 맥을 같이하여(김영규, 2025), 향후 통일 논의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통일필요성 인식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태도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통일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접근에서는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기대가 통일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통일 논의에서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불평등 완화와 같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가 통일필요성 인식을 강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통일 논의에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통일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통일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통일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통일필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 교류 협력 확대 및 대중적 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동선, 우경봉 (2024). 통일의식에 대한 코호트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분석과 대안*, 8(2), 31-64.
- 구본상, 최준영 (2019). 변화하는 한반도 환경하에 서의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 분석: 현대적 성차, 국가 자부심, 통일효용 인식. *Oughtopia*, 34(1), 43-75.
- 김규철 (2022).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가? *통일과 평화*, 14(2), 39-78.
- 김나영 (2021). 북한 및 탈북민 접촉경험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탈북민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8), 489-497.
- 김도경 (2019). 통일편익/비용과 통일인식의 관계 연구: 부산지역 대학생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2(3), 105-124.
- 김병로 (2017).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통일과 평화*, 9(2), 157-184.
- 김영규. (2025).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과 평가. *미래사회*, 16(2), 79-98.
- 문예찬, 황태희, 허재영 (2024). 대북제재와 통일인식: 한국적 맥락에서 제재효과의 재발견. *21세기 정치학회보*, 34(1), 61-86.
- 백대현, 이재완 (2015).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2), 205-223.
- 변중헌 (2012).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21(1), 157-186.
- 변중헌 (2022). 20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 필요성 논거. *윤리연구*, 1(139), 179-199.
- 서정옥, 김동욱, 김주경 (2021). 통일정책 효과성 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3(2), 91-110.
- 안득기 (2007). 북한 및 통일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1), 151-191.
- 오기성 (2022).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23(2), 79-101.
- 윤민재 (2017).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세대별 통일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5), 831-850.
- 이내영 (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22(1), 167-206.
- 이봉석 (2024). MZ세대의 통일의식과 한반도 '두 국가론'의 암묵적 지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 *기독교사회윤리*, 59, 345-376.
- 이수빈, 안지빈, 이세환, 오세일 (2023).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과 능력주의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27(1), 43-76.
- 전형권 (2015). 차세대 재외동포 통일교육 실태와 통일의식 제고 방안. *평화학연구*, 16(1), 61-86.
- 정동준 (2017).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2007-2017년 통일의식조사 설문결과 분석. *담론201*, 20(3), 157-195.
- 정용하 (2013). 통일교육의 영향과 통일·평화 인식의 변화: 대학의 통일강좌와 외부환경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9, 407-442.
- Alesina, Alberto, and Nicola Fuchs-Schündeln. 2007. Good-Bye Lenin (or Not?): The Effect of Communism on People's Preferences. *American Economic Review* 97(4): 1507-1528.
- Ai, Chunrong, and Edward C. Norton. 2003. Interaction Terms in Logit and Probit Models. *Economics Letters* 80(1): 123-129.
- Allison, Paul D. 1999. Comparing Logit and Probit Coefficients Across Group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8(2): 186-208.
- Angrist, Joshua D., and Jörn-Steffen Pischke. 2009.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grist, Joshua D., and Jörn-Steffen Pischke. 2014. *Mastering Metrics: The Path from Cause to Effe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Gabel, Matthew. 1998a. Economic Integration and Mass Politics: Market Liberalization and Public Attitudes in the European U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3): 936-953.
- Gabel, Matthew. 1998b. Public Support for European Integration: An Empirical Test of Five Theories. *Journal of Politics* 60(2): 333-354.
- Hooghe, Liesbet, and Gary Marks. 2005. Calculation, Community and Cues: Public Opinion on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Union Politics* 6(4): 419-443.
- Lupia, Arthur, and Mathew D. McCubbins. 1998. *The Democratic Dilemma: Can Citizens Learn What They Need to Kn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d, Carina. 2010. Logistic Regression: Why We Cannot Do What We Think We Can Do, and What We Can Do About I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1): 67-82.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Yale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2025. 12. 30.

심사일자: 2026. 1. 29.

게재확정일자: 2026. 2. 5.

What Influences Perceptions of Korean Unification? Focus on Post–Unification Benefits and Expectations for Improvements to Social Problems

Yechan Mo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necessity of unification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expectations of post–unification improvements to social problems on this perception. A multiple–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2023 Unification Awareness Survey. The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s who perceive unification to benefit both themselves and the nation tend to recognize its necessity more strongly. In particular, expectations around reducing income inequality and mitigating real–estate specula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 enhancing the perceived necessity of unification. This suggests that discussions around unification should not only emphasize economic benefits, but also consider social equity and the alleviation of inequality. Additionally, while the perception of greater personal and national benefits from unification was associated with a stronger recognition of its necessity, the moderating effects of expected improvements to social problems varied. Specifically, expectations around reducing income inequality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benefits of unification and its necessity, whereas other expectations around improvements to social problem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key determinants of unification awareness, this study provides critical insights to inform unification policies and public persuasion strategies.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emphasizes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the promotion of social equity and the reduction of inequality when advocating for unification.

Key words: Unification Awareness, Unification Necessity, Unification Benefits, Social Problem Improvement, Unification Policy

부 록

<부록 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이 통일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통일 개인 이익 모델)

	(1)	(2)	(3)	(4)	(5)	(6)
	빈부격차 해소	부동산투기 해소	실업률 해소	범죄율 해소	지역갈등 해소	이념갈등 해소
통일 개인 이익	0.939*** (0.160)	1.117*** (0.166)	1.041*** (0.192)	0.912*** (0.153)	0.932*** (0.159)	0.927*** (0.161)
빈부격차 해소	0.795** (0.310)					
통일 개인 이익 X 빈부격차 해소	-0.699* (0.431)					
부동산투기 해소		0.969*** (0.246)				
통일 개인 이익 X 부동산투기 해소		-1.459*** (0.368)				
실업률 해소			0.356** (0.175)			
통일 개인 이익 X 실업률 해소			-0.489* (0.298)			
범죄율 해소				0.379 (0.397)		
통일 개인 이익 X 범죄율 해소				-0.354 (0.578)		
지역갈등 해소					0.200 (0.323)	
통일 개인 이익 X 지역갈등 해소					-0.291 (0.441)	
이념갈등 해소						0.574** (0.276)
통일 개인 이익 X 이념갈등 해소						-0.483 (0.408)

무엇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통일 후 이익과 사회문제 개선 기대를 중심으로

	(1)	(2)	(3)	(4)	(5)	(6)
	빈부격차 해소	부동산투기 해소	실업률 해소	범죄율 해소	지역갈등 해소	이념갈등 해소
북한 인식	-0.202*** (0.0491)	-0.227*** (0.0491)	-0.211*** (0.0489)	-0.210*** (0.0490)	-0.212*** (0.0490)	-0.214*** (0.0487)
남북 대화 가능	0.539*** (0.148)	0.559*** (0.147)	0.543*** (0.146)	0.542*** (0.146)	0.546*** (0.147)	0.550*** (0.146)
성별	-0.284** (0.128)	-0.299** (0.129)	-0.286** (0.128)	-0.286** (0.128)	-0.285** (0.128)	-0.276** (0.128)
연령	0.286*** (0.0563)	0.286*** (0.0565)	0.282*** (0.0561)	0.285*** (0.0558)	0.285*** (0.0560)	0.285*** (0.0561)
학력	-0.0734 (0.132)	-0.0838 (0.132)	-0.0853 (0.131)	-0.0853 (0.131)	-0.0856 (0.131)	-0.0802 (0.133)
경제적 수준	-0.0636 (0.0797)	-0.0794 (0.0796)	-0.0659 (0.0787)	-0.0645 (0.0789)	-0.0654 (0.0791)	-0.0620 (0.0796)
정치적 성향	-0.0646 (0.0961)	-0.0832 (0.0969)	-0.0491 (0.0959)	-0.0721 (0.0950)	-0.0677 (0.0952)	-0.0642 (0.0955)
Constant	-0.395 (0.532)	-0.237 (0.522)	-0.375 (0.527)	-0.279 (0.523)	-0.280 (0.524)	-0.347 (0.525)
Observations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1$, ** $p < 0.05$, * $p < 0.1$

<부록 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이 통일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통일 국가 이익 모델)

	(1)	(2)	(3)	(4)	(5)	(6)
	빈부격차 해소	부동산투기 해소	실업률 해소	범죄율 해소	지역갈등 해소	이념갈등 해소
통일 국가 이익	1.106*** (0.138)	1.190*** (0.141)	1.237*** (0.155)	1.195*** (0.136)	1.159*** (0.137)	1.143*** (0.139)
빈부격차 해소	-0.139 (0.419)					
통일 국가 이익 X 빈부격차 해소	0.866* (0.500)					
부동산투기 해소		0.380 (0.322)				
통일 국가 이익 X 부동산투기 해소		-0.064 (0.400)				
실업률 해소			0.245 (0.256)			
통일 국가 이익 X 실업률 해소			-0.222 (0.310)			
범죄율 해소				0.266 (0.466)		
통일 국가 이익 X 범죄율 해소				0.153 (0.626)		
지역갈등 해소					-0.275 (0.436)	
통일 국가 이익 X 지역갈등 해소					0.508 (0.511)	
이념갈등 해소						-0.170 (0.428)
통일 국가 이익 X 이념갈등 해소						0.517 (0.490)
북한 인식	-0.205*** (0.0506)	-0.211*** (0.0503)	-0.210*** (0.0504)	-0.210*** (0.0505)	-0.213*** (0.0505)	-0.215*** (0.0503)

무엇이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통일 후 이익과 사회문제 개선 기대를 중심으로

	(1)	(2)	(3)	(4)	(5)	(6)
	빈부격차 해소	부동산투기 해소	실업률 해소	범죄율 해소	지역갈등 해소	이념갈등 해소
남북 대화 가능	0.554*** (0.146)	0.572*** (0.145)	0.607*** (0.145)	0.583*** (0.144)	0.580*** (0.146)	0.586*** (0.145)
성별	-0.236* (0.131)	-0.246* (0.131)	-0.246* (0.131)	-0.240* (0.131)	-0.242* (0.131)	-0.240* (0.131)
연령	0.291*** (0.0576)	0.284*** (0.0571)	0.290*** (0.0571)	0.288*** (0.0573)	0.290*** (0.0572)	0.287*** (0.0573)
학력	-0.084 (0.134)	-0.097 (0.133)	-0.087 (0.132)	-0.092 (0.133)	-0.088 (0.132)	-0.100 (0.134)
경제적 수준	-0.074 (0.0822)	-0.077 (0.0817)	-0.084 (0.0811)	-0.081 (0.0814)	-0.083 (0.0816)	-0.080 (0.0814)
정치적 성향	-0.077 (0.0992)	-0.070 (0.0991)	-0.076 (0.0990)	-0.081 (0.0988)	-0.082 (0.0986)	-0.076 (0.0991)
Constant	-0.703 (0.535)	-0.680 (0.530)	-0.703 (0.530)	-0.650 (0.528)	-0.619 (0.529)	-0.608 (0.529)
Observations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1$, ** $p < 0.05$, * $p < 0.1$